

# '43년 역사' 복구 운암전통시장 헐고 아파트 짓는다

### 시설 낡고 공실을 높아 시민 발길 '뚝'...상인들 뜻 모아 정비사업 32층 규모 주상복합 2동...“활성화 기대” vs “시장 소멸 아쉬워”

43년 동안 전통시장으로 광주시 북구 운암동 인근 주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던 운암시장이 사라진다.

주민 발길이 뜸해져 시장기능이 축소되고 상인들의 수입까지 줄어들고 있어 시장건물 등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짓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전통시장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은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이라는 것이 복구의 설명이다.

3일 광주시 복구에 따르면 조만간 복구는 운암시장 정비사업을 광주시에 추천할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운암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운암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올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추진위는 운암시장 건물 1개동(지하 1층-지상 3층·대지면적 3808㎡)과 인근 토지를 포함한 5375㎡의 면적에 지하 2층-지상 32층의 공동주택 2동(154세대, 상업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상인들은 시설 노후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통시장만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발길이 끊겨 수입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전통시장을 유지하기 보다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9년 상인회 주도 하에 운암시장 배송서비스로 활성화를 꾀하고 2018년 '운암삼합', 2017년 '삼합이 맛있는 운암시장' 등을 통해 손님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해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설립된 추진위는 현재 해당 토지 소유주(시장구역 88명, 인접지역 8명)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시장지역 62명, 인접지역 6명)를 얻었다.

운암시장 정비사업이 광주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되면 조합설립 절차를 밟게 된다.

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은 운암동 일대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시장 소멸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운암시장은 과거 홍보 포스터가 일부 뜯겨지고 매일장에도 불구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임대 스티커가 붙은 빈 가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2·3층은 10여년 전부터 공실로 사실상 1층 일부 상가만 문을 열고 있었다.

20여년간 운암시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기(67)씨는 "시장 자체가 40년이 넘다 보니



시민들의 발길이 끊겨 쇠락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전경. 3일 광주시 복구에 따르면 '운암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운암시장을 주상복합건물로 바꾸는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노후화에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며 "이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정비사업으로 주변 일대를 활성화시키는 게 상인들 입장에서 훨씬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도시화돼 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철진(51)씨는 "집이 근처라 가끔 시장 냄새도 맡고 사람들 구경도 할 겸 아이 손잡고 운암시장을

찾는다"며 "시장은 늘 사라지지 않고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시장이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선 다니 허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5·18 왜곡 막겠다는데...행안부 '판지'

### 정당 현수막 '5·18 왜곡 금지'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추가 행안부 "5·18 특별법 규정 있는데 굳이" 조례 수정 요구 논란

행정안전부가 정당의 현수막에서 5·18 왜곡·비방을 금지한 광주시의 조례를 문제삼아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광주시의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중 5·18 왜곡 금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해왔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을 행정동 당 2개 이하로 제한한 데 따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조항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보수정당 등에서 정당현수막을 이용해 잇따라 5·18 왜곡·비방하자 근절하기 위해서 신설됐다.

앞서 지난해 6월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와 광주시청, 5·18기념공원 등 광주 전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정당현수막이 내걸렸는데, '5·18유공

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액 환수하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5·18 유공자를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광주시의 조례안 검토요청을 받은 행안부는 '5·18 비방·폄하 금지' 내용이 별도의 법령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안부는 "5·18 관련 내용은 이미 5·18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옥외광고물법에서 추가 관리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5·18이 아니라라도 이미 다른 법령을 통해 규제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을 옥외광고물법에 일일이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정당현수막에 정치적 입장을 핑계로 5·18을 폄하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5·18왜곡방지법은 '출판물과 언론 등으

로 매체를 한정하고 있는데, 출판물에 현수막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법제처에 행안부의 지적이 올바른지, '5·18왜곡방지법' '출판물'에 현수막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왜곡방지법 자체는 제한 대상을 지나치게 명확하게 할 경우 오히려 편법을 유도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짚을 수 있다"며 "정당현수막을 통한 왜곡은 이미 발생한 일이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가들은 행안부의 입장은 자치규범을 제정할 광주시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박철 변호사는 "광주시의 조례는 5·18특별법의 규정을 구체화해 실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세칙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광주시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자율권이 있으며, 행안부가 '다른 법에 이미 나온 내용'이라며 조례를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o@

##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주제곡 '세상에 소리쳐! 글로벌!'

### 전남교육청 선정

전남교육청이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가치를 공유하고,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주제곡 공모를 통해 '세상에 소리쳐! 글로벌!'을 선정했다. 선정된 주제곡은 목포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제작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남·경북에서 12개 팀이 참여, 참신한 창작곡들을 선보였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세상에 소리쳐! 글로벌!'은 목포 한 초등학교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 응모한 작품이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박람회 대주제를 잘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디지털 기술과 공생해야 하는 미래 사회의 전초로서 새로운 시도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작품은 김형석 작곡가의 편곡을 거쳐, 박람회 기간 사전 공연과 다양한 행사에서 활용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전남대, 24시간 도서관 열람실 '백야' 오픈

전남대학교가 학교 설립 이래 처음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도서관 열람실을 마련했다.

전남대는 지난 2일 대학 도서관 별관(일명 백도) 4층에 24시간 운영하는 열람실 '백야(白夜)' 오픈식을 열었다. 백야는 방역 소독과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24시간 문을 연다.

백야(白夜)는 24시간 불을 밝히는 열람실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열람실은 1인은 물론 그룹 스터디가 가능한 공간, 스탠드형, 카페와 같은 오픈형 등 학생들의 학습 패턴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꾸며졌다. 총 좌석수는 153석이다.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리마다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개방형 학습공간으로 조성됐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자주 이용할 것 같다"거나 "학습 공간이 잘 꾸며져서, 학습 의욕이 높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정성택 총장은 오픈식에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공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학생 여러분"이라며 "백야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으로서 찬란한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정인민 시인 043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